

자살: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조망

김 효 창[†]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복잡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자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살이 자살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라고 볼 때, 자살의 결행 여부, 자살의 방법 등에 대한 결정은 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는 개인의 가치체계와 판단체계가 관여하는데, 이때 개인의 가치체계와 판단체계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동반 자살 중에 가족 동반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인식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부모-자식 관계를 부모와 자식이라는 각기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며 부모-자식을 하나로 여긴다. 둘째, 자살 촉발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대인 관계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보다는 관계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한국인의 대인 관계 형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취약성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음주 문제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음주로 인한 문제를 가버이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넷째,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은 남성에게 그리고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서구 사회와는 달라서 서양 문화권에서는 불안과 우울이 자살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되지만 우리 문화권에서는 화가 자살을 유발한다.

주요어 : 자살, 자살 태도, 자살 이론, 문화심리학, 가족 동반 자살

[†] 교신저자 : 김효창,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29

Tel : 02-326-1130, E-mail : snowson@hanmail.net

최근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통계청, 2010)에 따르면 해마다 3천여 명 수준이던 자살자 수가 1997년 6천여 명을 넘어선 이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6년에는 10,653명이 자살하였으며, 2007년에는 12,174명이 그리고 2008년에는 12,85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살자수는 인구 10만명당 19.1명으로 헝가리(27.4명), 핀란드(21.2명), 일본(19.9명)에 이어 세계 4위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3년에 발생한 전체 사망자의 사망 원인별 순위를 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자살의 순으로 나타나 자살이 5위를 기록하였다(김효창, 2006).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각국은 자국의 자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002년에 영국 정부는 2010년까지 자살자를 2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미국은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NSSP)을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다(한국청소년 개발원, 2002). 국내에서도 자살문제를 전담하는 상담 기관으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센터’, ‘사랑의 전화 24시간 카운슬링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에는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창립되는 등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효창, 손영미, 2006).

자살은 남겨진 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긴다. 남겨진 가족들은 자살자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의식에 괴로움을 겪으며, 부모가 자살을 한 경우 어린 자녀들은 평생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된다(정혜경, 안옥희, 김경희, 2003; 홍나미, 정영순, 1999).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성인의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동반한 자살 행태를 취함으로써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반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장운영, 차형수, 이정희, 1997).

자살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로 인한 부정적 파급 효과로 인해 자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자살에 대한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 자료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직접적인 자료 수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은 가족의 자살이라는 인정하기 힘든 상황을 재차 회상하도록 함으로서 심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응하는 가족 구성원을 만나기 어렵다. 그러나 자살자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자살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자살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자살에 관한 태도

자살행위가 개인의 자유라는 주장과 사회적 범죄라는 주장 간의 대립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살에 관한 태도는 절대 불가와 피동적 허용으로 나뉘어진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에는 자살을 금기시하고 자살자나 자살 미수자들을 처벌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스의 한 문헌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살한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 없으며, 그의 손을 잘라 따로 매장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자살을 더욱 금기시하였다. 영국은 10세기

초부터 자살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살인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자살자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귀족의 경우는 상민으로 신분이 강등되기도 하였다(김충선, 1995).

역사상 그 어떤 시기에도 공식적으로 자살을 인정한 경우는 없었지만 자살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로마시대에는 자살을 원하는 사람이 타당한 이유를 대면 행정관이 적당한 양의 독약의 일종인 햅록을 지급하였다. 또한, 삶에 염증을 느끼거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을 때 또는 치욕을 당해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가하지 않았다(박상철, 조용범, 1998).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을 종용하거나 장려했던 적은 없지만 특수한 목적을 가진 집단이 자살을 공식적으로 권유한 경우는 많았다. 집단의 물리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생존을 위해서 집단 자살을 종용한 것이다. 이 경우의 자살은 종교의식을 치르듯 집단적으로 행해졌다. 1944년 사이판에서 발생한 일본인들의 집단자살은 이러한 형태의 자살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미군이 사이판을 점령하자 수천 명의 일본인들은 섬의 북쪽 끝에 있는 마피라는 가파른 절벽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박상철, 조용범, 1998).

자살에 관한 이론

19세기말 사회학자인 Durkheim은 자살현상을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았으며, 연구 대상을 개인이 아닌 사회로 삼았다. Durkheim은 자살은 개인적 행위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살률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특정한 형태의 사

회 그룹이나 사회 변동이 자살률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예를 들어 한 사회가 심한 아노미 현상을 겪으면 사회적 결속력이 약해져 자살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가족, 종교 단체 혹은 여타의 사회 그룹과의 강한 유대는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박상철, 조용범, 1998).

Durkheim은 사회통합의 양상에 따라 자살을 이기적, 이타적, 아노미적 자살로 구분하였다. 이기적 자살은 사회가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자살 형태를 말한다. 개인 간의 응집력이 강하고 상호 유대관계가 형성된 사회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자살률이 낮지만 개인주의로 인해 개인 간의 응집력이 약하고 상호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회는 자살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특정한 사회 그룹에 지나치게 참여하여 의무감으로 자살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인들의 영웅적 자살이나 일본인들의 할복, 전우를 위한 희생 등이 이러한 자살 유형에 속한다. Durkheim은 이러한 자살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자살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규범을 따랐기 때문에 타인의 칭송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가 병적으로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하여 개인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Durkheim은 종교적 권위와 같은 강한 권위의 상실이나 사회의 아노미 현상을 촉진하며 이로 인해 자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살의 증가는 사회의 아노미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청소년 집단의 높은 자살률은 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유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약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미숙, 2007).

자살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다. 자살에 대해 프로이트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대상부착과 대상관계가 자살충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자기 파괴적인 죽음의 본능을 자살의 주범으로 본다. 정신분석학에서 대상이란 성적 혹은 공격적 에너지가 부착된 심리적 표상을 말한다. 인간이 경험하는 첫 번째 성적 대상은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아이는 자신과 어머니의 젖가슴을 구분하지 못하다가 어머니의 젖이 자신의 입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외부 세계를 지각하기 시작한다. 처음에 아이는 자신의 성적 에너지(리비도)와 대상(어머니)을 분리하지 못해 자기애적 상태에 머문다. 아이가 대상(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애적 리비도는 대상 리비도로 전환되며, 이때부터 대상에 대한 인식은 점점 구체화된다. 아이는 대상(어머니)이 자신을 배불리 먹여줄 뿐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등 쾌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아이는 대상(어머니)이 자신이 원할 때(배고플 때 등)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불쾌해하며 분노를 느낀다. 이로서 아이는 대상(어머니)에 대해 쾌와 불쾌라는 양가적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 에너지가 대상과 접합되는 것을 대상부착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대상과 자아와의 관계를 대상관계라고 하며, 이것의

상실을 대상상실이라고 한다(유성경, 이은진, 서은경, 2009).

프로이트는 자살을 우울증과 연관된 것으로 보았다.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에 집착하는 과정에 대해 프로이트는 우울증 환자들이 자아를 대상과 동일시한 후, 이 대상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자신에 대한 가학적 처벌로 이어지고 가학적 처벌의 결과가 자살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사랑했던 대상과 자아가 동일시되면서 이 대상은 자아의 일부분이 되는데, 이 대상에는 사랑과 미움 즉 양가적 감정이 부착되어 있다. 자신이 사랑하던 애인이 떠나면 그 애인에 대해 연민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 분노한다. 양가적 감정이 부착되어 있는 대상과 자아를 동일시하게 되면 외적 대상으로 향해야 할 분노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즉, 자신에게 공격의 화살이 돌아와 우울증 환자들은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죽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환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내적 표상을 파괴함으로써 대상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끼게 된다.

프로이트의 죽음의 본능은 자살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죽음의 본능은 파괴를 통해 궁극적 안정 상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인간의 삶은 생과 사의 본능 사이에 끊임없는 반복 즉, 자기파괴(죽음)와 자기영속이 리드미컬하게 반복된다. 프로이트는 자기영속 본능을 에로스로 자기파괴 본능을 죽음의 본능이라고 명명하였다.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에로스는 최고의 안정 상태인 죽음을 저지하기 위해 종족을 번식하는 삶을 추구한다. 반면에 죽음의 본능은

영원한 안정 즉 유기체의 종말을 추구한다(박상철, 조용범, 1998).

Karl Menninger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그는 자살 심리의 배경에는 세 가지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 가지 동기는 죽기, 죽이기, 죽임을 당하기로 이는 죽음의 본능과 관련되어 있다. 죽음의 본능은 생의 본능과 함께 선천적인 것으로 에로스와 혼합되어 중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적 대상이 너무나 위협적일 경우에는 제거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일 외적 대상을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시한 자아의 일부분을 죽임으로써 그 위협을 제거하고자 한다(설영환, 1991).

근자에 들어 자살이론은 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자살 연구자들은 자살자들의 인지적 왜곡이나 행동적 문제뿐 아니라 생리학적 이상 여부를 실험이나 실증적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이들은 자살은 프로이트의 대상 상실에 따른 자기학대나 Durkheim의 사회적 결속력 약화와 같은 한두 가지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살은 만성질환, 상실, 충동적 성격, 심리적·신경적 유약성, 약물중독 등 다양한 내·외적 조건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박상철, 조용범, 1998).

자살에 대한 연구는 자살 위험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자살을 일으키는 위험요소를 알아낼 수만 있으면 자살현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Mosciki는 자살의 위험요소를 근거리 요소와 원거리 요소로 구분하였다. 근거리 위험요소는 애인의 변심, 사업의 실패와 같이 자살과 시간적으로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요소를 말하는데, 이는 자살의 촉

발제 역할을 한다. 원거리 위험요소는 근거리 요소와 같이 시간적으로 자살과 근접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충동적 성격, 우울증, 만성질환, 약물중독 등이 이에 속한다. 근거리 요소의 소인을 가진 사람이 원거리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살 위기에 처하게 된다(Mosciki, 1995).

자살 현상에 관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해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이 소개되고 있다(박상철, 조용범, 1998).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은 심리장애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원호택, 1997).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따르면 유전적 소인이나 뇌신경계의 이상을 지닌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한 심리장애에 취약한 행동, 정서, 인지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개인의 취약성이라고 한다. 개인의 취약성은 신체 생물학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리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개인에 따라 고도의 취약성을 지닌 개인에서 취약성이 거의 없는 낮은 수준의 취약성을 보이는 개인까지 취약성의 수준에서 연속성을 가정할 수 있다(김효창, 2006).

개인의 취약성 개념은 Jaspers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그는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신병리가 나타난다고 보고, 유전적 소인을 개인의 취약성으로 명명하였다. Jaspers 이후, 유전적 소인과 생의 초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취약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취약성 개념이 확대되었다. 즉, 개인의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 사회적 요소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취약성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자극에 민감하지 못한 소인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과

정에서 사회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면 아이는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행동양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개인의 취약성이 된다. 이후, 개인의 취약성 개념은 출생 전후의 유전-환경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출생 후 청년 전기까지의 생애 기간 동안에 부딪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후천적이고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취약성이란 생애 발달 과정에서 유전적 소인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정리병리에 취약한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원호택, 1997 재인용).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은 어떠한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대하여 견디는 힘이 적어서 쉽게 심리장애를 갖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 즉, 취약한 요인이 많을 경우에는 사소한 환경적 스트레스에도 쉽게 심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반대로 취약한 요인이 적은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의하면, 자살 현상에 대한 연구는 자살의 배경이 되는 취약성 요인과 자살을 일으킬만한 환경적 스트레스인 촉발 사건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Mosciki, 1995; Felner & Silverman, 1995).

자살 연구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

특정 사건이 자살을 촉발하는 사건이 될지의 여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즉,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살 촉발 사건으로 여겨지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자살 촉발 사건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애인의 변심에 상심하여 자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위 동료들의 위로로 거뜬히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판하여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자살의 촉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는 개인의 가치 체계와 판단 체계가 관여된다. 이때 개인이 갖는 가치 체계와 판단 체계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것으로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최상진, 2000). 따라서 자살과 관련된 현상은 문화라는 변인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들의 자살 행동은 서구인들의 자살 행동과는 독특한 성질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는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에서 문화적인 측면을 다루는 심리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새롭게 일고 있다. 미국의 학자들이 주를 이루는 일반심리학은 실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자연과학적 전통에 뿌리를 둔 것으로 미국이 아닌 지역, 특히 아시아의 심리학자들은 특정 문화에만 의거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문외한적인 심리학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유럽 심리학자들 역시 과학적 심리학은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으로부터 문화적인 면을 다루는 과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학자들은 심리학이 인간 정신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무시함으로써 심리학의 본질로부터 이탈되었음을 지적하고 심리학의 필연적 부분으로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면을 통합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김의철, 박영신, 1997).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문화 심리학이다. 문화 심

리학(cultural psychology)은 포스트모던적 담론을 통해 근대성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 세계에 대한 신념이 그 기반부터 해체되고, 근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제 학문 분과들의 구분을 벗어나 인간의 삶에 방식에 대한 인식방법론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김정운, 한성열, 1998). 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와 심리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사람의 심리 속에 문화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안착될 뿐 아니라 문화를 통해 심리가 구성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문화와 행동, 문화와 마음은 불가피하게 서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최상진, 2000; Bruner, 1993).

문화심리학에서는 내재화된 문화적 측면을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내재화된 문화란 집단과정과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상징 및 의미체계,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해석체계는 물론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욕구-동기체계,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가치체계 및 도덕체계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감각 및 지각적 경험체계 등 현상학적, 주관적 경험체계를 모두 포함한다(최상진, 2000).

다양한 자살 행동 즉, 자살의 결행 여부, 자살 방법의 선택에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이 관여된다. 이때 개인의 판단체계가 문화적 산물임을 감안할 때 자살은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인의 자살에 대한 이해는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인의 자살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자살이 전염병처럼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뚜

렷한 현상 중의 하나는 두 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동반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난 익명의 사람들이 함께 자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동반 자살의 유형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자살하는 가족 동반 자살이다(이미숙, 2007).

최근 10년간 가족 동반 자살 현황을 보면, 1995년 37건으로 전체 동반 자살 건수 중 43.2%였으나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41건으로 전체 동반 자살 건수의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동반 자살 건수에서 가족 동반 자살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투데이 코리아, 2006). 이처럼 전체 동반 자살 건수 중에서 가족 동반 자살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친밀한 남녀관계에서 상대방을 가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는 동반 자살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국(World Socialist Web Site, 2005)이나 호주(Milroy, 1995; Carcach and Grabosky, 1998) 등 서구사회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내에서 가족 동반 자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문화적 인식 때문이다. 한국의 ‘아버지’와 미국의 ‘Father’가 같지 않으며, 우리말의 ‘자식’과 영어의 ‘Son’이 갖는 의미가 문화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상징되고, 의미화되며, 규정된다(최상진, 2000).

서양의 가족 구조와 한국의 가족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양의 가족 구조는 부부(夫婦)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한국의 가족 구조는 부자(父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서양 가족 구조의 중심이 되는 부부 관계의 본질은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그리고 아내

는 아내의 역할을 성실히 해낼 것을 약속한 일종의 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가족 구조는 부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최근 호주제의 폐지로 인해 그 의미가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문화에서 대를 잇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연속성(continuity)은 부자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부부관계는 끊어질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또한 부자관계는 당사자 간에 임의로, 혹은 계약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맺어진 관계이다(한성열, 2005).

한국의 부모가 서양의 부모에 비해 자식에 대한 영향력이 크며, 동시에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가 서구의 부모-자녀 관계보다 더욱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한다.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시합에서 이겼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는 것은 외현적으로는 그동안 자식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에게 보답한다는 고마움의 표현이 가장 큰 동기로 보이지만, 보다 심층적이며 심리적인 동기는 자신의 즐거움을 부모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모-자식 기쁨 동일체감’을 함축하고 있다(최상진, 2000).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부모의 자녀 동반 자살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자신이 자식을 돌볼 능력이 없거나,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외부적 조건에 의해 자식이 불행해질 상황에 봉착할 때 자식을 동반하는 자살을 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부모-자식 불행 동일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부모는 부모-자식관계를 부모와 자식이라는 각기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둘이 아닌 부모-자식을 하나로 지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부모에 의한

가족 동반 자살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2000).

한국인의 자살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대인 관계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이 많다는 점이다. 자살의 촉발 사건은 자살자가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말하는데, 성인과 노인 자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김효창, 2006; 김효창, 손영미, 2006)의 결과를 보면 전체 자살 사건 중(전체 57명의 자살자)에서 촉발 사건이 언급된 경우는 총 15건으로 나타났다. 자살 촉발사건은 촉발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개인적 위기 사건과 대인 관계적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촉발 사건이 언급된 총 15건 중 개인적 위기 사건은 3건에 불과한 반면, 대인 관계적 사건은 12건으로 나타났다.

두 선행 연구에서 대인 관계적 사건은 자살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죽음이나 관계 단절 등을 경험하는 대인 관계 상실 사건과 대인 관계상 갈등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된 대인 관계 갈등 사건으로 분류되었는데, 언급된 자살 촉발 사건 중 대인 관계 갈등과 대인 관계 상실이 각기 6건으로 나타났다. 대인 관계 갈등은 부부싸움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부간의 다툼과 형과의 다툼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대인 관계 갈등의 경우 모두 가족 구성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인 관계 상실은 타인과의 관계 단절, 사망 등의 사건으로 발생하는 자살 유형을 의미하는데, 두 선행 연구 결과, 타인의 사망으로 인한 자살은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사건이 한 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관계 단절로 인한 자살이었다. 관계 단절의 경우는 부모의 가출, 이혼소송, 출소 후 가족과 연락이 안 됨,

아들 내외가 자신을 떠난 것 등이 촉발 사건으로 나타났다. 관계 단절의 경우도 대인 관계 갈등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가족 구성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인이 대인 관계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많은 것은 개인주의적인 성향보다는 관계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한국인의 대인 관계 형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자살자들이 남긴 유서 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유서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만 44세의 여성이 쓴 유서의 내용이다.

어머니 불효를 용서하세요. 아들들이 잘 살아다오. 정말 죄인으로 가는 엄마가 부끄럽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절약하며 저축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다오. 엄마는 잘못 살았나보다 정말 미안하다.

유서에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불효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자식들에게는 어머니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다.

다음은 만 63세의 남성이 가족들과 채권자들에게 남겨 놓은 유서의 내용이다. 아내가 거액의 빚을 지고 잠적한 상태에서 자신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00에게

우리 아들에게 좋은 것을 아버지가 물려주고 가도 섭섭한 것인데 고통만 주고

가니 너무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가 부탁할 것은 00(남동생)이와 잘 의논 합심하여 굳세게 살아라. 저승에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일처리 잘하고 00, 00이 잘 키워라. 엄마가 연락되면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말씀드리어라. 애미(며느리)는 불쌍하니 따뜻하게 평생 보살피라. 두 형제가 굳게 합심하여 잘 지내라. 미안하다. 아빠가.

채권자 여러분

피해를 보신 여러분에게 보상도 못하고 떠나 미안합니다. 무엇이고 있어야 보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세상을 하직하려하니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죄스럽습니다. 부탁하건데 우리 자식들 너무 괴롭히지 마시오. 부모 떠나고 남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도 갚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형편이 안 되어 사회의 몫으로 이성을 떠나려합니다. 저승에서도 부채를 갚고 싶소만 그건 안 되겠지요. 저승에서도 여러분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며 화나면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유서에는 변사자의 심적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현실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자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자살을 선택하는 자살자의 애절한 자식 사랑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자살자의 취약성 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가정환경 요인 그리고 사회환경 요인으로 나뉘어지는데, 개인적 요인 중 음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개인적 요인 90개 중 12개로 단일 요인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자살자의 취약성 요인으로 음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음주로 인한 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흔히 우리는 음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잘못을 사람보다는 술에 돌림으로서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준다. 음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난 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곤잘 대는 이유도 음주 문제에 대해 관대한 문화적 특성 때문이다. 또한, 문제에 직면할 때 적극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음주를 통한 소극적, 회피적 문제 해결 방안이 널리 사용되는 것도 음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오대영, 2007).

넷째,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다(김효창, 2006; 김효창, 손영미, 2006). 선행 연구를 통한 이러한 결과들은 남성들이 가장으로서 가정 경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방식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박경애, 1996). 즉,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은 남성에게 그리고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서양 사회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서로 다르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불안과 우울이 자살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되지만 우리 문화권에서는 화가 자살을 유발한다. 개인주의 사회인 서구에서는 독립, 자유, 자기 결정성, 일관성 등이 바람직한 가치로 여겨지는 반면,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외로움의 감정이 기본적인 부정적인 정서가 되며, 이 상태가 너무 심하고 지속적이면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진다. 한편 관계주의 문화를 가진 우리 사회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심전심의 관계를 이상적인 관계로 여기며,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지는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여야 하는 일심동체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나의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섭섭함을 느끼고 억울하고 화가 난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논의 및 결론

우리는 자살의 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살자는 내성적이고 소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적응에 실패한 부적응자라고 여긴다. 그러나 자살은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다. 심리적, 종교적, 사회·정치·문화적, 그리고 개인 삶의 정황 등 복잡한 변수들이 상호 관계하는 복합적 현상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살 행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요소뿐 아니라 심리적, 유전적, 생화학적,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자살은 자살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의사결정 과정에는 개인의 가치체계와 판단체계가 관여되는데, 개인이 갖는 가치체계와 판단체계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것으로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갖는 가치체계와 판단체계 속에는 자신이 속한 문화적 특성이 내재된다.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동일한 가치체계와 판단체계를 갖는 반면, 상이한 문화권

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가치체계와 판단 체계를 갖는다.

자살의 결행 여부, 자살 방법의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는 자살자가 속한 문화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한국인의 자살은 미국인의 자살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의 자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자살을 한국의 문화적 틀 속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밀한 남녀관계에서 상대방을 가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는 동반 자살의 비율이 높은 서구 사회에 비해 국내는 가족 동반 자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문화적 인식의 차에 기인한다. 한국인들은 부모-자식 관계를 부모와 자식이라는 각기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며 부모-자식을 하나로 여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돌볼 능력이 없거나,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외부적 조건에 의해 자식이 불행해질 상황에 봉착할 때 자식을 동반하는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둘째, 자살 촉발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대인 관계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인이 대인 관계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많은 것은 개인주의적인 성향보다는 관계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한국인의 대인 관계 형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취약성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음주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로 인한 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문제에 직면할 때 적극

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음주를 통한 소극적, 회피적 문제 해결 방안이 널리 사용되는 것도 음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넷째,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성들은 가장으로서 가정 경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방식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다섯째, 서구 사회에서는 불안과 우울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억울함과 화가 자살을 유발한다.

본 연구는 자살 현상을 문화라는 변인을 고려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우선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외국의 자살 사례들과 면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살 현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비교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앞선 두 선행 연구(김효창, 2006; 김효창, 손영미, 2006)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두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경우 연구 대상자 수가 적고 인구 통계적 분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전체 자살자수가 57명으로 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성인과 노인에 대한 자료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자료가 빠져 있어 본 연구 결과를 한국인의 독특한 자살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자살은 연령대에 따라서도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의철, 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96-126.
- 김정운, 한성열 (1998).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 김충선 (1995). 자살론. 서울: 청아.
- 김효창 (2006). 성인 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5-33.
- 김효창, 손영미 (2006). 노인 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1-19.
- 박상철, 조용범 (1998). 자살, 예방할 수 있다. 서울: 학지사.
- 박경애 (1996). 성과 자살. 가족과 문화, 1, 149-171.
- 설영환 (1991). 생명을 존중하며 삶을 사랑하는 마음. 서울: 고려서원.
- 오대영(2007). 닛폰 리포트. 서울: 중앙북스.
- 원호택 (1997). 이상심리학. 서울:학지사.
- 유성경, 이은진, 서은경 (2009). 상담 및 임상 실무자를 위한 정신역동이론. 서울: 학지사.
- 이미숙 (2007). 가족동반자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탐색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0, 153-175.
- 정혜경, 안옥희, 김경희 (2003). 청소년의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2), 107-126.
- 장운영, 차형수, 이정희 (1997). 부산지역 대학생의 자살 성향의 변인으로서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지지. *가정의학회지*, 18(6), 657-665.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 (2010).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http://kosis.nso.go.kr)에서 2010, 5, 24일 인출.
- 투데이 코리아 (2006). <http://todaykorea.co.kr>에서 2010, 1, 12일 인출.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청소년 자살의 원인 및 예방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자살의 이해와 예방. 서울: 학지사.
- 한성열 (2005). 한국사회의 신뢰와 불신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및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63-174.
- 홍나미, 정영순 (1999). 청소년자살생각 영향요인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4), 447-473.
- Bruner, J.S. (1993). Do we "acquire" culture or vice versa?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6, 515-516.
- Carcach C., Grabosky P. N. (1998). Murder-Suicide in Australia. *Trends & Issue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eries*, 82, 1-6.
- Felner, R. D., & Silverman, M. M. (1995). Suicide Prevention Program: Issues of design, implementation, feasibility, and developmental appropriateness In M. M. Silverman & R. W. Maris (Eds), *In Suicide Prevention: Toward the Year 200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ilroy C. M. (1995). The Epidemiology of

- Homicide-Suicide(Dyadic Death).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71, 117-222.
- Mosciki, E. K. (1995). *Epidemiology of suicidal behavior*. In M. M. Silverman & R. W. Maris (Eds), *In Suicide Prevention: Toward the Year 200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orld Socialist Web Site. (2005). An Epidemic of Murder-Suicide in the US. http://www.wsws.org/articles/2005/mar2005/side-m16_pm.shtml
- 논문투고일 : 2010. 02. 01
1 차심사일 : 2010. 05. 10
게재확정일 : 2010. 05. 19

Cultural Psychological Exploration on Suicide

Hyo-Chang Kim

Hakjisa Psychological Institute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suicide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psychology. The result was that: First, the main reason to commit the familial suicide in Korea is due to cultural characteristic. Korean people does not think the relationship of parents and children is separate or independent. So, When they can not bring up their child, Korean parents commit the familial suicide. Second, many people commit suicide not individual problems but interpersonal problems. This result reveal that Korean people think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is very important. Third, there are too many alcohol problem in Korea. The reason is generous attitude about alcohol problem. Fourth, suicide of man due to economic problem on the other hand, women due to personal health problem. The reason of this is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the family responsibility rest with man and the household affairs responsibility rest with women. Also,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psychological researches must be performed in the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indigenous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Key words : suicide, suicidal attitude, suicidal theory, cultural psychology, familial suicide